


빵을 만들다 보면,
 좋은 빵을 만드는 것은
 좋은 사랑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걸 깨닫게 된다.
 좋은 재료와 좋은 솜씨를 갖춰야 한다는 면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제대로 만들어진다는 면에서,
 그리고 설사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반죽이 익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말이다.

영화 '주노명 베이커리' 중

2024년도 벌써 두 달이 지나가는데 내 인생이 무턱대고 흘러가는 것만 같아 초조하십니까.
 그래서 혼자 공연히 짜증도 내고, 주변을 다그치기도 하십니까.
 조바심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것뿐이니까요.
 당신의 삶, 당신의 시간들로 반죽해낸 그 무엇이 그윽한 향기와 풍미 가득한 맛을 자아낼 순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묵묵히 정성을 다합시다. 또 다른 생명들을 위해 고요히 익어갑시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믿는 사람에게에는 영생이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요한복음 6:47~48 / 쉬운성경)

 전주동부교회

동넙

동넙은 전주동부교회가 이웃들을 향해 보내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에스겔 43:2)



지혜로운 인생을 위하여

김 종 철 전주동부교회 담임목사



2024년 음력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스승으로 알라’는 말을 남긴 독일의 요한 볼프강 폰 괴테(1749~1832)는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1. 지나간 일을 쓸데없이 후회하지 말라.

잊어버려야 할 것은 깨끗이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는 잊고 미래를 바라볼 때 그 순간에 행복의 길이 보입니다.

2. 언제나 현재를 즐기라.

인생은 현재의 연속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과 시간을 즐기고 그 일에 정성과 열정을 다하면 지혜가 생기고 현명한 처세가 나옵니다.

3. 될 수 있는 대로 화를 내지 말라.

분노 속에서 내뱉은 말이나 행동은 반드시 후회를 남깁니다. 절대로 분노의 노예가 되지 말고, 분

노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4. 특히 남을 미워하지 말라.

증오(憎惡)는 인간을 비열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격을 타락시킵니다. 남을 미워하는 그 순간 나는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될수록 넓은 아량을 가지고 남을 포용 하고 섬기십시오.

5. 미래를 신(神)에게 맡기라.

미래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어떤 일이 앞으로 닥쳐올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래는 하늘과 신에게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 취할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괴테의 다섯 가지 조언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과거와의 관계, 두 번째는 현재와의 관계,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무엇보다 절대자이신 신(神)과의 관계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 세상과 우주의 조화, 무엇보다 인간의 존재가 신비롭습니다. 어김없이 아침과 저녁이 되며, 사계절의 변화가 분명한 이 세상의 조화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입니다. 인간의 몸에는 100억 개가 넘는 혈관이 존재하는데, 지구를 약 3바퀴 정도 감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루도 막힘없이 흐르고



있는 인간의 몸속을 볼 수 있다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황당한 소리를 믿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논어(論語)> ‘술이편(述而編)’에 “三人行(삼인행)이면 必有我師焉(필유아사언)이라 擇其善者而從之(택기선자이종지)하고 其不善者而改之(기불선자이개지)니라” 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으니, 그중에 선한 사람을 가려서 는 그를 따르고, 선하지 못한 사람을 가려서는 나의

잘못을 고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 가정과 자녀들, 생업이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인간의 창조주이신 선하신 하나님을 친구삼아 인생길이 힘든 길이 아니라 기쁨의 길, 소망의 길, 사랑의 길, 믿음의 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래ES 전기안전관리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태양광 발전소 유지관리
태양광 전지판 열화상 드론 점검
제초. 각도조정. 누전조치
빌딩.공장.관공서.전기설비

대표 **박 선 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105, 2층
Phone. 063) 715-0700
Fax. 063) 715-0710
Mobile. 010-2703-6257
E-mail. sun6257@gmail.com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청년 임 혁



저는 건설자재관리 일을 하며 주님을 섬기는 청년 임혁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저는 6년이 되었고, 구원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자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동료들과 즐겁게 일하며, 직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 삼일교회에서 만난 김종철 목사님이 전주동부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셔서,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들으려고 주일예배에 찾아왔다가 작년 5월 28일에 정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은 세종시로 발령을 받아 일하며, 주일마다 자가용으로 전주로 와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제가 그동안 사역했던 교회의 사랑하는 청년들과 신앙선배들, 그리고 세상적으로 쌓아놓은 실적들을 다 포기하고 일터와 소속 교회를 옮기는 일이 솔직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창세기 12:1)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새롭게 보여줄 땅이 어디일까에 대해 기도하고 내린 결정에 후회는 없습니다.

전주동부교회에 진심으로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은 모든 성도들의 교회에 대한 사랑과 섬김 때문이었습니다. 각자가 맡은 직분을 불평불만 없



이 감당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내가 배울 게 많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전주동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사도행전 2:46)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 사촌 3~4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젊은 세대를 이끌어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모습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현재 저는 중고등부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담당하는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제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청년사역도 함께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제 또래들이 많지 않다보니 처음에는 담임목사님께서 교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처럼 전주동부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일, 성도들이 성경말씀에 쉽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책을 내는 일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구한 믿음의 역사를 가진 교회에서,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먼저 앞장서서 섬기는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현미·정소연 기자

사랑을 나눠요, 사랑을 드려요



러브박스 나눔사역 펼쳐



추위를 녹이는 사랑의 행진이 펼쳐졌다.

전주동부교회는 신도관리위원회와 전도위원회 주관으로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두 주에 걸쳐 ‘러브박스 나눔사역’을 전개했다. 해마다 성탄절헌금으로 쌀을 마련해,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주민센터를 통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던 일을 올해에는 더 많은 이들과의 나눔으로 확대한 것이다.

러브박스에는 라면 다섯 개들이 한 묶음과 물티슈 그

리고 전주동부교회의 전도편지 <동넙> 창간호 등을 각각 담아, 교회당 주변을 포함해 성도들의 이웃과 직장 등 총 1,000여 곳에 배포했다.

남녀전도회의 협력 속에 진행된 이번 나눔사역에서, 맹추위를 견디며 러브박스를 집집마다 전달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의 가슴에 고스란히 전달되고 그 수고와 정성이 전도의 열매로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 윤미영 기자

사명을 확인하다

제직세미나와 전도세미나 이어져



2024년 한 해 동안 복음과 세상을 위해 더욱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주동부교회는 1월 21일에는 제직세미나를, 1월 28일에는 전도세미나를 각각 열고 진정한 헌신의 길을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다.

제직세미나에는 전주영생교회 김동연 목사가 강사로 나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동연 목사는 “겉보기만 가진 신앙으로는 세상의 조롱을 피할 수 없으며, 결국 우리의 공동체도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 편에 선다면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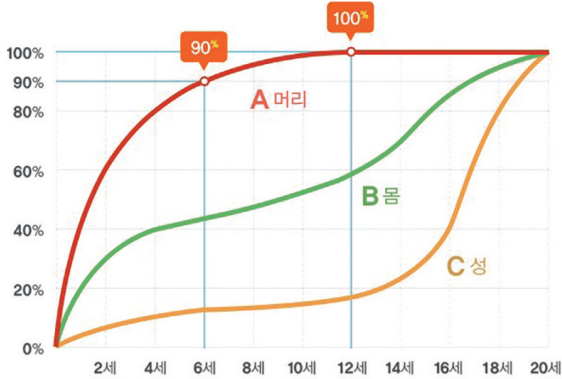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월 한 차례 릴레이로 진행되는 전도세미나의 첫 번째 문은 모자이크교회 정갑준 목사가 열었다. 전주동부교회 부목사를 지낸 후, 서신동부교회(현 모자이크교회)를 개척해 사역해 온 정갑준 목사는 오랜 세월 성실하게 감당해온 칼같이전도 호떡전도 등의 활동을 소개했다. 전도의 사명자를 다시 힘차게 감당하는 공동체로 나아가자는 메시지가 큰 울림을 주었다.

| 정재영 기자



신앙교육의 최적기는 언제일까요?



스캐몬의 성장곡선 그래프(출처: 조선일보 창간 96년 특집 ‘읽기 혁명’)를 살펴보면 아이의 성장은 ‘두뇌 > 몸 > 성’ 발달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출생 후 첫 1년 동안 뇌 발달의 40%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12세에 두뇌배선이 거의 완성됩니다. ‘재능 체감의 법칙’에 의하면 거대한 학습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기들은 0세에 가까울수록 무한능력의 천재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놀라운 천재성도 점점 줄어들어 고정화됩니다.

또한 유아기의 아이들은 기억의 패턴이 우뇌사고의 시기에 있기에, 오감을 자극받으며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이미지로 기억됩니다. 모든 것을 사진기억(이미지)으로 저장한 유아기시절의 자료들을 아이들은 평생 꺼내 쓰고 응용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아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어난 직후부터 가정에서 엄마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출생 후 몇 개월 사이에 아이의 지적 호기심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아이가 좀 더 자라야 인지가 가능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앙교육에 가장 결정적인 교육환경 또한 바로 부모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당연히 태중에서부터 만 8세까지의 시기가 몹시 중요합니다. 특히 영유아기와 유치원 시절에 기도하고 말씀 보며 찬양하는 생활의 패턴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의 흡수력이 최대치일 때, 부모는 생명이 되는 말씀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고의 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 최조경 기자



전주동부교회 유치부를 소개합니다



■ 2024 표어 | 지혜 쏙쏙! 믿음 쏙쏙!

■ 주 제 말 씀 |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18)

전주동부교회 유치부는 5세에서 7세까지 아이들과 함께하는 부서입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본당 지하 유치부실에서, 서현선 전도사님 이하 총 10분의 선생님들과 귀한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을 알아가고 2) 하나님을 닮아가며 3)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4) 가정이 교회가 되는 교육목표 아래, 아이들이 ‘지혜는 쏙쏙! 믿음은 쏙쏙!’ 자라도록 기도하며 돕고 있습니다.

■ 교역자 | 서현선 전도사

■ 부 장 | 김병국 집사 ■ 총 무 | 최원진 집사

희생과 감사를 배우는 군산 나들이



따뜻한 3월이 다가오고 있다. 가족과 봄철 나들이를 계획 중이라면 민족의 아픔과 기독교 역사를 다시금 새겨볼 수 있는 군산 방문이 어떠할까?

군산은 일제강점기 수많은 물자를 빼앗기는 수탈의 현장이었던 동시에, 그 불의한 시대에 맞서며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 눈에 띄는 업적을 남긴 강인한 고장이기도 하다. 개화기 무렵인 1892년 미국에서 파견된 7명의 선교사가 전라도를 찾아오며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거점 중 하나가 바로 군산이다. 군산 내항이 자리했던 옛 군산세관 부근에 상륙해 첫 발을 들인 전진과 드루 선교사는 당시 수덕산에 자리를 잡고 군산선교부를 일으켰다. 그러다 이곳에서 궁멸(현재의 구암동)로 자리를 옮긴 군산선교부는 교회(구암교회 개복교회 등) 병원(구암예수병원) 학교(영명학교 멜볼딘여학교) 등을 세우며 지역에 뿌리내렸다.

특히 이 선교기관들은 3·1운동이 전개되었을 때, 3월 5일 궁멸에서부터 봉기를 일으키며 한강이남 최초의 만세운동 발원지가 되도록 앞장섰다. 이처럼 군산의 교회사와 근대역사의 중심에 있던 군산선교부의 면면은 아직 그 자리를 지키는 구암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영명학교의 옛 건물도 몇 해 전 군산3·1운동100주년기념관으로 복원되었고, 멜볼딘여학교의 옛 건물도 군산기독교선교기념관으로 곧 복원될 예정이다. 여기에 군산선교 초창기를 이끌었던 선교사들의 묘역까지 정비되어 구암동산에는 다시 활기가 돈다. 이곳에서 선교 초기의 유물 전시실, 각종 역사체험시설, 포토존 등을 가족과 함께 관람하며 뜻깊은 배움과 추억의 시간을 갖기를 추천한다. 매년 3월 1일이면 구암

교회 앞마당에서 만세운동 재현행사가 펼쳐진다. 그 행렬에 동참해 힘차게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을 외쳐보는 것도 한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새만금권역의 초입인 내초동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아펜젤러기념교회가 나타난다.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과 한글성경 번역작업 등에 헌신하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해상 사고로 숨진 아펜젤러 선교사의 신앙과 생애를 기리는 곳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일깨움과 감사의 마음을 솟아나게 한다.

군산은 이토록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력 가득한 도시이다.
| 김형열 기자

<동녘>을 만드는 사람들

발행인 : 김중철

편집인 : 안효건

제작팀 : 정재영(팀장)

김형열 윤미영 이승은 이현미 정소연 최조경

발행처 : 전주동부교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88

전화 (063) 275-7760 홈페이지 www.cjdb.or.kr

<동녘> 제작을 후원하신 분들

김미영 김숙희 김옥순 박선규 박영삼 소하수 안효건 이동주
이정희 이준례 이현미 이홍재 임 순 정소연 정숙자 정재영
최근수 최금이 최조경 (가나다순·2024년 2월 15일 현재)

전도편지 <동녘> 제작을 후원하실 분들은 1구좌당 5000원씩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계좌 > 카카오�뱅크 3333-29-3293494 이현미

당신을 초대합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을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앞장서 이끌어주고, 평생 동행하며 힘이 되어줄 존재를
모든 인생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족, 친구,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진리로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교회는 그 사랑, 그 진리를 따르는 이들이 모이는 생명공동체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에서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하고, 참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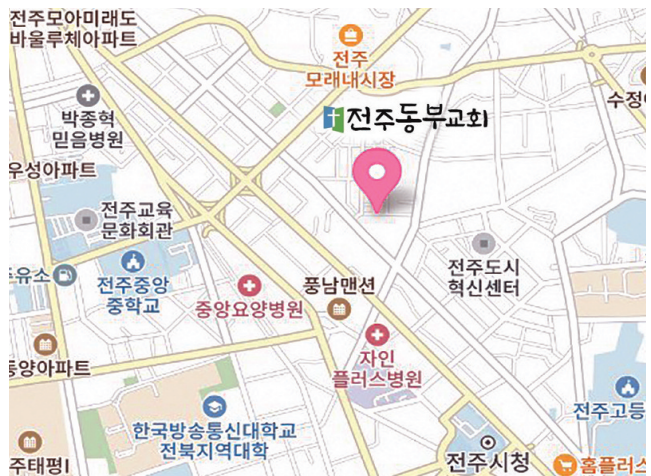


전주동부교회는 한국교회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중전주노회 소속으로, 1933년 10월 15일에 설립되어 90년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특히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따르는 공동체로서 정체성과, '학생교회'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다음세대 사역에 전념하여 큰 열매를 거둔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새벽예배		매 일 05:00		본당
주일 1부		일요일 09:00		본당
주일 2부		일요일 11:00		본당
찬양예배		일요일 15:00		본당
수요예배		수요일 19:30		본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20:30		본당
영유아부		일요일 11:00		교육관 1층
유치부		일요일 11:00		본당 지하 1층
유초등부		일요일 11:00		교육관 2층
중고등부		일요일 09:00		교육관 3층
대학청년부		일요일 13:00		본당 4층
부부모임		일요일 13:00		지정 장소

찾아오시는 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88 063) 275-7760~1